



사람

유안진 시인

## “불교와 시는 미소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살다  
말할 수 있는 친구  
가 있었으면 좋겠다.



유안진 시인

‘지란지교(芝蘭之  
交)를 꿈꾸며’의 시인  
유안진, 시인은 지금  
도 그 꿈을 꾸고 있을  
까? 시인은 개인이 아  
니라 세상 모든 사람  
들의 지란지교를 열망  
하고 있다. 하얗고  
시를 쓰고 시로 보고  
시로 느끼고 시로 생  
각한다. 그래서인지,  
‘코앞’에 칠순의 나이  
를 두고도 난초 같다.  
2009년 만해축전에서  
유심문학상을 수상한  
시인은 붉은 석류자를  
마시며 “안 쓰면 쓰고  
싶고 쓰면 더욱 쓰고  
싶은 게 시”라고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  
이(23세)에 시인이 되어 지금까지 시인의 길을 걸어 왔다. 다른 길  
에 대한 궁금증이 발동되기도 했지만 이 길에서 행복하다”고 말하  
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다. 반면에 난초향기가 서린 듯.

### 만해의 열린 생각으로 사회 통합 이루어져야

“지금 시를 정의 한다면?” 하고 여쭈었더니 즉답이 날아 왔다.  
“~ 받침 하나가 모자라 신이 못된 것이 시”라고. 그리고 “시의 길  
과 불교의 길은 다르지 않다”며 “시와 불교와 자연이 합일 되어야  
평화에 이른다”고 결론 지었다. 시인은 역대 선사들이 남긴 계승과  
시들이 모두 그 경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인은 가톨릭 신자다. 그러나 불교를 좋아한다. 부처님의 가르  
침과 수행자들의 결집 없는 생각들, 그리고 항상 열려 있는 문을 좋아  
한다. 시인은 불교를 “미소의 종교”라고 정의 한다. 저 백제금동  
미륵반가사유상의 미소야말로 내면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경지에  
서만 드러낼 수 있는 미소이기에 불교의 궁극이 바로 거기에 있다  
는 것이다. 시의 궁극도 거기에 있기에 불교는 문학을 종교적 차원  
으로 승화시키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시인의 만해(萬海)에 대한 존경심도 남다르다. “대립 일변도의 사  
회를 통합하고 선순환 시기기 위해서는 만해 스님의 열려있는 생  
각이 절실하다”는 시인은 “만해축전만큼 열려 있고 열정적이고 깊  
은 사색과 학문적 열의가 있는 축제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  
했다.

시인은 앞으로 우리 민족이 살아 온 삶의 궤적 속에서 새로운 삶  
의 원형질을 찾아내는 일에 더욱 몰두하고자 한다. 서울대학을 퇴  
직 하면서 시작하려 했던 일인데, 벌써 3년이 지나버렸다. 그나마  
최근 시집 <알고(考)>를 내고 안도했다.

임태연 기자

## 이토록 선명한 ‘독립염원’을...

진관사 칠성각 해체복원 현장서 독립운동 사료 6종 17점 나와

1919년 12월, 독립운동 활동을 하  
던 백초월 스님(1878~1944)을 검거  
하기 위해 일본 순사가 서울 진관사  
로 들이닥쳤다. 스님은 순사에게 잡  
혀가기 전 진관사 칠성각 불단 뒤에  
한지로 쓴 보따리 하나를 급히 숨겼  
다.

그로부터 90년이 지난 2009년 5  
월 26일, 진관사 칠성각(서울시 문화  
재 제33호) 해체복원 불사 현장을 지  
휘하던 진관사 총무 법해 스님은 불  
단과 기둥사이 벽면에서 흰 한지 등  
지를 발견했다. 범상치 않은 발견에  
스님은 주지스님에게 사실을 알렸  
다.

물건을 대증방으로 옮긴 후 조심  
스레 펼쳐 본 주지스님과 대증스님  
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지  
속에는 곱게 접힌 태극기와 <독립신  
문> <신대한신문> 등 인쇄물이 다  
수 있었던 것. 초월 스님이 숨겨둔  
문지였다.

서울 진관사(주지 계호)는 8월 11  
일 기자회견을 열고 칠성각 해체  
복원 과정에서 발견된 태극기 및 독  
립운동 사료 6종 17점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독립운동 사료는 대  
한민국 임시정부 내 단체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극기 1점을 비롯  
해 <신대한> 3점, <독립신문> 2종 4  
점, <조선독립신문> 5점, <자유신  
보> 3점, 경교문 1점이다. 태극기는  
세로무늬의 태극과 4괘 뒷붙임식 태  
극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뒷붙  
임식 태극은 1900년대를 전후해 태  
극기 제작 양식이 규정되기 이전에  
사용된 방식이다.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연구소 김용  
달 연구위원은 “제작 방식으로 볼  
때, 1919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크기로 볼 때 3·1운동 등 시위보  
다는 단체용으로 사용했을 것”이라  
고 주장했다.

태극기와 함께 보관됐던 사료 가



운데에는 단체 신채호가 중국 상해  
에서 창간한 <신대한> 신문과 독립  
운동세력이 발간해 ‘대한민국’ 연호  
를 사용한 <자유신보> 등 국내에 서  
는 처음 공개되는 자료가 많다.

독립운동연구소 김주용 박사는  
“창간호와 제17, 18호만 중국에 있  
고 국내에는 필사본으로 보관된 <신  
대한> 신문의 제1·2·3호가 함께  
발견된 것은 독립운동사 연구에 큰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발견된 독립운동 사료를 조사한  
동국대 문명대 교수 등 연구자들은  
“이번에 발견된 자료는 불교계와 진  
관사, 독립운동을 전개한 스님들이  
3·1운동 당시와 대한민국 임시정  
부의 독립운동 과정에서 매우 긴밀  
한 관계를 갖고 있었음을 추증케 한  
다”고 설명했다.

계호 스님은 “독립운동 당시 사용  
된 태극기 등의 발견으로 진관사가  
근현대 격변기에도 중요 위치를 차  
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발견된  
유물 보존과 복원을 비롯해 학술세  
미나 개최를 통한 학술적 조명이 나  
시나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 금주의 Hot.....



지명 스님  
12선지식



오세환  
08불자들



서린 에버디  
23강의실

법구경  
집 짓는 이는 나무를 잘 다듬고  
현명한 이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

현대불교 @ 샵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불경금액 소정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문의 02)722-1850

문젠 명상 센터  
선 / 명상 / 요가  
임산부 요가  
02-956-2460

얼레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차, 각종 차음  
생활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점 배송

사회 라오스 공생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희망 Dream 꿈 드림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와 현대불교신문사는 ‘공생청소년  
센터(GoodHands YouthCenter Laos)’ 후원 캠페인 ‘희망Dream 꿈드림’  
을 전개합니다.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세요.  
● 주 최 : (사)지구촌공생회, 현대불교신문사  
● 주 관 : (사)지구촌공생회  
● 기 간 : 2009년 5월 13일 ~ 8월 3개월간  
● 모 금 액 : 3000만원 목표(1구좌 1만원)  
● 후원계좌 : 농협) 170341-51-015696 (사)지구촌공생회  
● 문 의 : 지구촌공생회 02)455-9596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0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정지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C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빛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중등 주문 받습니다(사말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중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중등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